

일본 연립 여당 간사장 일행 접견

- 인사말 -

우리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본의) 새로운 사과가 아니라 과거에 행한 사죄와 반성에 합당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독도 등의 문제에 대한 현재와 같은 일본의 태도를 일본이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국민들은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와 함께 불안을 가지고 있다. 불안의 근거는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언행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진정으로 한·중 등 이웃나라와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를 만들고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일본이 스스로 경계한다면 우리 국민이 경계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본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경계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 이래 우리는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일관계는 불안하나마 균형점을 갖고 유지돼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

범 후 최근 들어 일본측이 야기한 독도, 역사교과서 등의 암초에 걸려 한·일관계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암초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양국관계는 또다시 암초에 걸리게 돼 있다.